

보도시점 2023. 12. 3.(일) 12:00 (2023. 12. 4.(월) 조간)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안전시스템 및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orea Safety Culture Index)」(이하, 'KSCI')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4일부터 전국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해 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안전의식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문화 수준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컨설팅받기도 어렵고,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KOSHA-Care)」은 문항이 많고(144개) 복잡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23.10, 290개소).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KSCI를 개발하고 있다. KSCI는 기업의 안전의식 수준, 노·사 참여도, 안전 제안 제도 운영현황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안전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평가지표로 현재 14문항의 약식 버전과 51문항의 전체 버전으로 잠정 개발안이 나온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KSCI의 타당성, KOSHA-Care와의 차별성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 감독 시 활용하고, 향후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안전문화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KSCI를 본격 보급할 예정('24년 말 시행 추진)이다.

담당 부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책임자	과 장	박완근 (044-202-8990)
		담당자	사무관	안대환 (044-202-8885)

□ KSCI 개발 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업 안전의식 수준, 노·사 참여도, 안전 제안제도 운영 등을 반영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 추진

*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KSCI, Korea Safety Culture Index)

- '17년도부터 개발·고도화하고 있는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정성지표)에 계량화된 지표를 추가하여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도입예정('24)

<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개발 경과 >

(도입배경) 무재해운동을 통한 안전문화활동이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17)됨에 따라 '19년부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17~'18) 안전문화모델과 선행지표 개발 및 측정도구(144문항) 개발
- ('19~'20)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개시 및 활용도 검증
- ('21~'22) 단축형 설문(48문항) 개발, 효과성 검증 및 모바일버전 제작완료

□ KSCI 개발 현황

- KSCI는 주기적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문화를 측정·개선'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14문항의 Short 버전과 51문항의 Full 버전 개발 중
- KSCI-Short는 조직과 개인의 조직문화, 안전의식, 시스템, 안전행동 등 무형(내면심리적 요소) 및 유형(외부 관측 요소)의 4가지 요소로 문항을 구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KOSHA-Care)의 16개 안전의식 요소 중 34개 영역에 각 문항이 매칭(중복포함) 되고 영역/직책/고용형태별 분류 및 평가 가능

- KSCI가 자율적-지속적 안전문화의 진단과 개선이 가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임

붙임2

단축형 평가지표 (KSCI-Short)

※ 14문항

문항	내용	비고
1	우리 회사는 생산성만큼 안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조직문화
2	우리 회사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투입에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조직문화
3	다수의 작업자는 생산일정이 촉박할 때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와 안전조치를 '시행한다/시행하지 않는다.'	안전행동
4	다수의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을 감지 하였을 때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중지하지 않는다.'	안전행동
5	우리 회사는 지난 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매년 새로운 안전목표를 수립하는데 '체계적이다/형식적이다.'	시스템
6	다수의 작업자는 작업 현장의 돌출부에 걸려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사고로 '보고한다/보고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7	우리 회사는 작업표준에 기반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매뉴얼에 반영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부족한 편이다.'	시스템
8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 문제에 솔루션범 '한다/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9	우리 회사의 안전교육 내용은 '체계적이며 현장감 있는 편이다/ 형식적이고 현업에 활용이 어렵다.'	시스템
10	다수의 작업자는 안전교육 시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편이다.'	안전의식
11	우리 회사는 작업 중 발견되어 보고된 불안전 요소의 조치에 '빠르고 체계적이다/ 느리고 답변이 없을 수도 있다.'	시스템
12	우리 회사의 안전 관련 의견교환은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 눈치보기가 있는 편이다.'	안전행동
13	우리 회사는 안전관련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효율적인 창구가 '다양하며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족하며 활용되지 않는다.'	시스템
14	우리 회사는 안전 행동 증진을 위해 포상, 칭찬, 성과급 등의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다/ 없다.'	조직문화